

해 외 출 장 복 명 서

연구과제명 또는 출장명: “해외농업개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연구” 중국 해외농업개발 실태 현지조사

1. 출장목적

- 중국 정부의 해외농업개발 전략 및 민간 기업 지원정책 파악, 중점 개발대상국 및 권역별 추진전략 조사
- 해외농업개발 진출 중국 민간 기업 및 연구기관 관계자 면담을 통한 시사점 도출

2. 출장개요

- 출장자, 출장지, 출장기간

출장자	소속	출장지	출장기간
이대섭 연구위원	국제농업개발 협력센터	중국(베이징)	2017. 9. 9. ~ 2017. 9. 13. (4박 5일)

*우즈베키스탄 현지 연수 및 워크숍 출장과 연결하여 추진

3. 주요 내용

-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중국 정부의 주요 추진 전략 파악을 위한 관계자 참여 워크숍 개최
 - 중국농업부 농촌경제연구중심(RCRE), 중국농업부 대외경제협작중심 관계자 참석 등을 통한 발표 및 토론을 통한 해외농업개발 추진 전략 파악
 - 한국의 해외농업개발 전략 및 추진 현황 발표를 통한 정보 교류

- 연구기관 관계자 면담 및 해외농업개발을 위해 진출한 민간 기업 관계자 면담을 통한 지원 체계 및 실태 조사
 - 중국의 해외농업개발 정책 및 전략 개발을 연구 추진 실태 파악과 향후 중국 정부의 해외농업개발 방향 조사
 - 실제 해외농업개발을 위해 해외에 진출한 민간 기업을 통해 중국 정부의 정책 수요 및 궁극적 목표 파악

4. 일정표(방문기관 등)

No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 기관	수행 업무
1	9.9(금)	타쉬켄트 (9.9, 금 21:10)	북경 (9.10 토 05:55)	◦ CZ 6028	◦ 우즈벡 타쉬켄트 출발, 북경 도착
2	9.10(일)				◦ 워크숍 준비 및 자료 정리
3	9.11(월)	체	재	◦ 중국 사무소	◦ 중국 해외농업개발 사례
				◦ 워크숍 개최	◦ 일정 논의 ◦ 농업부 농촌경제연구중심 ◦ 양국 해외농업개발 전략 발표 및 토론
4	7.12(화)	체	재	◦ 중국농업대학	◦ 민간 기업의 해외농업개발 실태 조사 ◦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 수행 실태 조사
5	7.13(수)	베이징 (10:40)	인천 (13:50)	◦ OZ 332	◦ 귀국

5. 주요 결과

1. 중국 농업부 농촌경제연구중심과의 워크숍 발표

- 일시 및 장소: 2017. 9. 11(월). 1:30-5:30, 농촌경제연구중심 회의실
- 참석자: 이대섭 박사, 전형진 박사(농경연), 이철희 박사(농진청), Zhai Xueling 박사, Long Wenjun 박사, Zhang Zhaoxin 국장, Xu Guodong 박사, Xu Xue 팀장(중국농촌경제연구중심) 외 8명 등 총

16명 참석

○ 주요 발표 내용

- 발표주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해외농업투자 개념과 전략 (Korea's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Investment: Concepts and Strategies, the Case of Ukraine)으로 국제곡물시장 현황, 한국의 곡물 수입 방식 및 현황, 일반적인 한국의 해외농업 개발 현황, 진출 대상국 농업현황 분석의 필요성 및 우크라이나 농업 현황, 향후 투자 방향 및 진출 분야 선정 등을 설명
- 최근까지의 국제곡물시장은 가격 변동성 심화로 인한 불안정 위험이 상시 존재하기 때문에 수입국 입장에서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한국의 경우 해외농업개발이나 해외로부터 직접 곡물을 조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통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자 하나 과거 정보 및 경험 부족에 의한 실패 사례가 많음
- 한국은 해외농업개발을 위해 연해주,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을 중점 권역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의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진출하고자 하는 이유는 전통적으로 농업생산에 적합한 토양 성분의 대규모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곡물을 생산, 판매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가이기 때문임
- 더불어 우크라이나는 주요곡물인 옥수수, 밀 등의 수출국으로 한국 및 제3국으로의 수출 경험이 축적되고 있어 우크라이나의 노하우와 한국의 기술 및 자본이 결합하면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으나, 우크라이나와의 농업 분야 협력은 생산 분야와 별개로 유통 및 판매 분야에 초점을 두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또한 생산 분야는 양국 간 합의를 통한 대규모 농지 사용권 확보가 전제될 필요가 있으며, 농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시범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도출, 이를 토대로 향후 농산업복합단지 형식의 대규모 비즈니스 모델이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함.

○ 중국측 발표 내용(발표자: Zhai Xueling 박사)

- 발표주제는 중국의 해외농업투자 현황으로 투자지원체계, 일대일로 정책과의 연계성, 향후 방향 등으로 분류하여 발표
- 중국은 2008년 국제곡물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해외농업투자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으며, 현재 투자규모와 속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현재 파악된 현황은 600여개 기업이 90여 개국에 투자하고 있으나 중국의 전체 해외투자 중 약 1.8%에 해당
- 더불어 투자 분야와 지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수산분야에도 진출하고 있으며, 주요 투자 분야는 양식업이며, 주로 농업에 집중하고 있음
- 중국의 투자 대상 지역은 주로 아시아 국가(50%)들이며, 투자금액의 약 70%를 차지하고 호주,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이 주요 진출 대상국가.
- 과거의 투자형태는 국영기업이 주도하는 공적자금투자였으나 최근 민간 기업 진출이 증가하면서 민간+국영기업 형태로 전환되고 있으며, 투자규모 또한 소규모에서 대규모 투자로 확대되는 추세.
- 중국 정부의 정책방향은 진출 초기 제도적인 통제의 개념으로 접근하였으나 최근 자율투자 방식으로 전환, 정부가 지원하는 개방형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
- 중국정부의 지원 방식: 1)재정지원(융자, 보조) 중 융자는 대상국

리스크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소득세 1년 면제, 자연재해 피해 세금 면제, 106개국과의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 등을 통한 세제혜택 등이 포함됨. 보조금은 사전타당성조사, 근로자 교육비용, 물류비 등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음. 2) 일대일로 정책 지원은 대상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기초시설 지원, 인적 역량 강화 지원, 투자문제 해결, 단 1회 검역심사를 거치는 국제철도(신장→유럽)망 구축을 통해 물류의 권역별 이동체계 마련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국제철도는 6국가 통과(16일 소요) 기준 30일 단축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며, 항공물류 대비 1/5의 비용이 소요되는 획기적인 체계

○ 주요 논의 사항

- 중국의 지원정책은 현재까지 대상국 내부의 위험요인과 중국의 식량안보 문제를 고려하여 현실에 적합한 방향으로 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중국의 국영기업(COFCO, 광민그룹)은 국제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있음. 특히, 다국적 곡물메이저인 ABCD 수준의 시설 및 운영권 확보를 통해 국제시장에 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더불어 중소기업의 진출은 생산→중국반입을 통한 시세차익에 초점을 두는 비즈니스 형태가 대부분이며, 반입시 대상국과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국정부는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수행
- 특히, BRICs 국가 중 중국은 국제화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해외 농업투자를 통한 농업 분야 국제 경쟁력 강화가 주요 목적으로 2013년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및 제도적 지원 체계가 구축되었음.

2. 중국 농업대학 관계자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2017. 9. 12(화), 농업대학 회의실
- 참석자: 이대섭 박사, 전형진 박사(농경연), Chen Qian Heng박사와 대학원생 5명 등 총 9명 참석
- 주요 논의 내용
 - 중국 농업부가 해외농업투자에 지원하는 금액은 연평균 약 7천만 위안-1억 위안 수준이며, 대부분 무상지원. 특히, 대규모 국영기업이 해외에 농장구축사업은 2천만 위안 수준으로 지원.
 - 중국 상무부는 해외농업투자 중소기업의 시장조사 비용을 무상지원하고 있으며, ODA와 연계하여 국영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ODA 연계 지원은 건당 약 5천만 위안에서 많게는 1억 위안 수준으로 지원.
 - 사례: 미얀마와 라오스의 마약 삼각지대에서 중국기업의 농산물 생산(약 13만ha) → 반입 시 특혜 관세 적용
 - 중국의 해외농업투자 초기는 전략적 농산물에 초점을 두었으며, 중장기적으로 ABCD 영향이 강한 국제곡물시장에서 중국의 기업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목적을 둬. 브라질 계약재배, 아르헨티나 곡물 수집, 극동러시아 10만ha 곡물 생산 등이 대표적인 사례.
 - 해외농업개발 관련 연구 수행 현황: 일반적으로 기업 지원정책 개발 연구가 대부분이며, 구체적인 분야는 기존 정책 분석을 통한 효과성 제고. 특히, 최근 국내정책을 해외투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시범사업으로 농기계관련 지원제도를 해외 적용 시 영향 및 효과를 분석하고 있음.
 - 더불어 긍정적인 효과가 도출될 시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연구, 해외 확보 곡물의 반입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연구, 재정지원 효과

성 분석 등이 주를 이루며, 외교적 측면의 연구는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완화 방안 등.

○ 시사점

- 중국정부의 해외농업개발 정책은 국영기업을 통한 국제곡물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진출을 통한 국내 반입 활성화로 구분할 수 있음.
- 이를 위한 중국정부의 지원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국영기업 진출 시 ODA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ODA 활용과 외교적 협력 강화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큼.
- 또한 중국정부는 현재까지 106개국과의 2중과세 방지협정, 14개국과의 FTA체결, 법에 명시한 제도적 세금혜택을 통해 해외농업투자 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 더불어 대규모 국제 철도망을 유럽까지 연결하는 인프라 부분의 정부 투자가 확대되어 물류비용 감소 및 운송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게 하는 효과를 도출, 해외농업투자 기업의 물류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점도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큼.
-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해외농업개발 또한 진출기업에게 필요한 현지 인프라 구축 및 기타 분야에 ODA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국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

첨부



관련기관 관계자



관련기관 관계자